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고령화 대응정책[1)]

■ 농업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가 나타남.

- 전체 근로자 중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6년 4.4%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560만 명의 근로자가 농업 부문에서 이탈함.
- 유럽에서 420만 개의 농가가 사라졌으며, 이 중 85%는 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임.
- 2030년까지 농업 노동력이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와 기술 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임.
- 농업 노동의 약 60%가 55세 이상이며, 1/3은 65세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의 농민은 전체의 11%[2)], 35세 미만은 5.1%를 차지하고 있음.
- 회원국 중 포르투갈은 농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65세 이상 농민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 포르투갈, 키프로스의 청년농업인 비중은 매우 낮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민보다 더 큰 규모를 경작하며, 가축 및 작물 생산량 또한 많음.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업 부문 세대교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의 진입장벽은 △높은 토지 가격과 고령 농민들의 은퇴 지연, △금융 상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 획득의 어려움, △긴 근무 시간과 적은 휴일, △시장 및 기후로 인한 리스크와 불확실성 등이 있음.

1) 유럽의회조사처의 "Older people in the European Union's rural areas: Issues and challenges"(2020.12.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2) 여성 농업인 중 40세 미만의 농민은 8.6%를 차지함.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에서는 고령 농민들이 은퇴하고 그들의 농장을 후계자에게 상속하도록 유도함.

- **(청년직불금)** 공동농업정책의 Pillar 1은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5년간 기본직불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Farm and business development)** 처음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한 청년농업인에게 5년간 최대 70,000유로를 지원함.

- **(체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미나와 농장 방문(4개 지역의 6개 농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 농민들과 청년농업인, 신규 진입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함.

■ 농촌개발프로그램은 ICT 기술 보급과 노인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지원을 제공함.

- **(폴란드)** 50세 이상의 농촌 주민에게 전문 강사가 3일간의 IT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자에게 태블릿 PC와 키보드를 제공해 교육 내용을 실습해볼 수 있음.

- **(독일)** 헤센 지방에서는 목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공동체 건강관리센터로 바꾸어 노인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핀란드)** 1,3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서는 고령층을 위하여 Digi-Hub를 운영하며, 노인들이 건강, 은행 업무, 쇼핑 등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역 내 자원봉사,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크로아티아)** 코로나19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정보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안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Call for Health'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만성질환자들에게 의학 자문과 약 무료배송을 제공함.

-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고령자가 약을 처방받기 위한 외출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약국 네트워크가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함.

- **(이탈리아)** 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역 병원의 인공호흡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호흡기를 생산하였고, 농업단체는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2 2021년 10대 이슈와 농업[3)]

■ 유럽의회조사처에서는 2021년에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를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이슈)** △백신 경쟁과 건강, △EU 회복 계획[4)]: 위기를 기회로
-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식량 시스템 개혁, △순환 경제를 위한 디지털 전환
- **(사회문화적 관련 이슈)**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재점화, △문화 위기 심화
- **(대외적 상황 변화 관련 이슈)** △중요 원자재 수급, △새로운 국경 관리 정책, △동지중해 분쟁 심화, △미국의 정권 교체

■ 농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는 '식량 시스템 개혁'을 통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있음.

- 코로나19의 이후 7.4%의 유럽연합 시민들이 격일로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지 못하고, 몇몇 회원국에서는 많은 시민이 식량 지원과 푸드뱅크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식품 공급 사슬에서 병목 현상(bottleneck)을 비롯한 유통체계 왜곡이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절근로자의 수급이 어려워져, 식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럽연합의 식량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관찰되고 있음.

■ 식량 시스템 개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자 함.

- 2021년부터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이 실행되며, 유럽 그린딜과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략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
-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결 과제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식량 공급, △농식품 관련 생계(livelihood)유지, △농업과 관련된 천연자원의 보호가 꼽힘.
- UN 2021 Food Systems Summit(2021년 9월 예정)에서 △토지 계획의 전환, △디지털 경제, △무역 인센티브, △혁신적 농업, △식품 소비 변화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유럽연합은 이들을 2021년 봄에 결정될 정책적 우선순위로 둘 것임.

■ 10대 이슈 중 디지털 경제,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다양한 부문이 농업 생산, 환경 문제, 농산물 무역 등과 연관되어 있음.

3) 유럽의회조사처의 "Ten issues to watch in 2021"(2020.12.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4) 2021~2027년 1조 1천억 유로가, 2021~2023에는 Next Generation EU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으로 7,500억 원 유로가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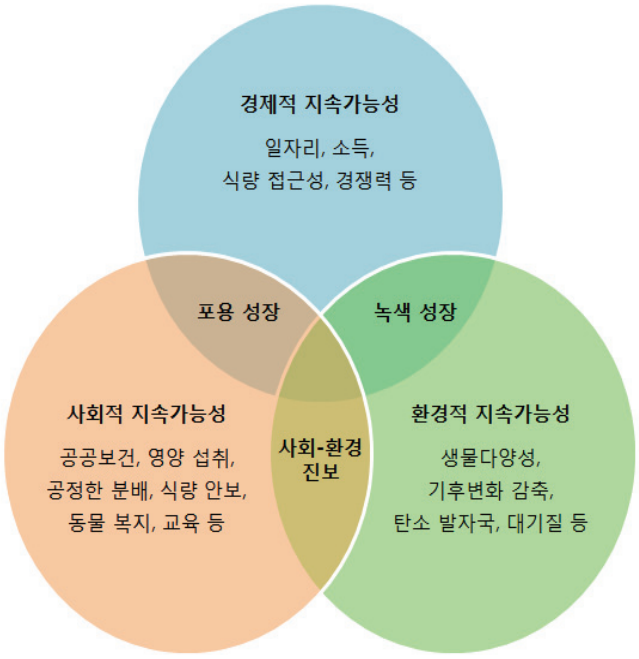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 예산 중 최소 30%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사용, 최소 10%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IT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며,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 및 미국의 영향력 강화 외교 정책으로 회귀하여 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그림 1.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정의 |



자료: Towards a Sustainable Food System(2020.08.03.)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5)]

■ EU 지역위원회는 2020 농업·농촌 대상 코로나19 대응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발표함.

5) EU 지역위원회의 "Experiences of rural areas with European Union's COVID-19 response measures"(2021.1.22.)와 "UN Food Systems Summit Community launch"(2021.1.21.)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 규제 완화, 농식품 공급 사슬에 안전망(safeguard) 확보 등으로 시행되며, 이 정책들은 2021년부터 시행될 Next Generation EU 계획에서도 지속될 것임.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와 공동농업정책에서 자금이 사용됨.

- 하지만, 같은 기간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 기금은 7,100만 유로가 감소함.

- 2020년 4월부터 16개의 국가에서 약 40개의 정책이 농식품 분야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에 35억 유로가 사용됨.

■ 국가와 지역별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전체 57개 국가 및 지역 중 17개에서 100만 유로 이하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정책자금 변경이 발생함.

- 이탈리아(10개 지역), 프랑스(8개 지역), 스페인(7개 지역), 독일(2개 지역), 포르투갈(2개 지역) 중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1,700만 유로의 정책자금이 감소했으며,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3,100만 유로가 증가함.

- 2020년 7월에 M21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분배되었으며, 이는 '농가 성과', '다각화, 중소경영체 및 일자리 창출', '생산자 경쟁력' 등의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음.

- 이 외에도 지역 정부 중심으로 지원(state aid)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농가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해주어 소득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됨.

| 표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 부문의 지역 지원 정책(State aid) |

지역	정책 내용	수혜자(명)	자금(백만 유로)
왈롱 (Wallonia)	• 감자 생산자 및 보관업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501~1,000	10.4
플라망 (Flanders)	• 감자 및 관상용 식물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1,450	35.0
브뤼셀 (Brussels)	• 농업 및 수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50~1,000	0.2
캄파니아 (Campania)	• 농업, 어업, 버팔로 축산 농가 등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1,000	70.0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Friuli Venezia Giula)	• 농업, 임업, 어업에 대출 이자 지원 및 무이자 대출 지원, 직접 보조금 지불	500~1,000	50.0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 EU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지역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책은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음.

- **(예산 확대 필요)** 전염병으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 **(농업 위기 계획)**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농업위기유보(Agricultural crisis reserve)에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함.
- **(간소화된 절차)** 일괄적용면제규정[6](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 유연성 강화)** 전염병 발생 시,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 **(디지털 및 녹색 전환)** EU 회복 계획에 농촌이 포함되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배양해야 함.

2021 Food Systems Summit

■ 2021 Food Systems Summit를 대비하여 2021년 7월에 이탈리아에서 예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2021 Food Systems Summit은 2021년 9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임.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만족하기 위하여 5가지 Action track을 설정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표 2. 2021 Food systems summit의 5가지 Action track |

Action track	주요 내용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영양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품의 충분한 생산 및 공정한 식품 분배를 추구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식품 가치 사슬 강화, 식품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과 유통 거리 감소를 유도
친환경 생산 방식 촉진	• 생산, 가공, 분배 등에서 환경 자원의 최적 투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확보, 환경 오염, 물 사용, 토양 유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약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공정한 분배로의 진보	• 식품 공급 사슬의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고용을 제공하여, 빈곤 탈출 및 사회보장을 통한 회복력을 확보
취약성, 충격,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력 확보	• 세계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영향으로부터 식품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공조를 유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0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일괄적용면제규정이란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규정임(No 651/2014 GBER 참조).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4 농촌 일자리 확대 지원[7]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에서는 활력 있는 농촌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사례를 발표함.

-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환경, 바이오, residential economies[8] 등과 관련된 농촌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와 재정지원을 시행함.

■ [프랑스] La Tournerie의 공동 유기농장(Collective organic farm) 만들기

- Lille's Higher Institute of Agriculture에서 같이 공부한 청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La Tournerie 지역의 83ha의 농지를 은퇴 예정 농민들로부터 구입함.

- 각 구성원은 40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Dotation Jeunes Agriculteurs를 통해 매년 22,400유로를 지원받았음.

- 2015년부터 4ha의 농지를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사용하였고, 20ha에서는 빵, 맥주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곡물을 재배하고, 돼지, 염소, 젖소 등을 사육하여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료는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된 곡물을 이용하고 있음.

- La Tournerie는 현재 직접 생산한 맥주를 판매하고 콘서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주변 마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지역 빵집의 경쟁력 강화

- 1998년에 설립된 Hriňová 지역의 빵집은 46명의 상근 노동자를 고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값싼 냉동 빵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짐.

-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자금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장비와 공장 확장, 창고 용량 증가에 투자하였음.

- 이후 2톤의 60~70종류의 빵이 매일 생산되었으며, 2017년 180만 유로였던 연간 매출이 2019년에는 230만 유로로 증가하였음.

7)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Discover the ingredients for vibrant rural areas"(2020.8.25.)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8) 이주자들에게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2021. 2.): 유럽

■ [오스트리아] 농촌 기업과 일자리의 네트워크 향상

- Kraft. Das Murtal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지역 간 협동 강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확장을 실시함.

- 현재 80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사업자 등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약 7,000명의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 기업 간 멘토링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설명회(job days)를 운영함.

■ [리투아니아] 농촌의 사회적 고용 증대

- Kaunas 지역은 청년층의 이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쇄된 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만들었고, 노인들을 위한 30개의 숙박시설과 지역에 18개의 일자리를 제공함.

| 표 3.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일자리 확대 지원 사례 |

국가	프로젝트명	목표	기간	지원액(유로)
프랑스	La Tournerie	공동 유기농장 만들기	2015~2017	563,000
슬로바키아	Bakery Hriňova	지역 빵집 경쟁력 강화	2016~2017	1,992,842 (민간 896,779)
오스트리아	Kraft. Das Murtal	지역사업과 일자리 네트워크 향상	2016~2018	465,340 (민간 279,204)
리투아니아	Renovation of the building located at Knygnešio P. Varkalos street 26, Girininkai village	농촌의 사회적 고용 증대	2019~2021	230,000 (민간 46,000)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